

특별기획 생명을 나누는 장기 기증 / (2) 장기 기증 실천자들

“누군가의 제2의 삶, 기적 선물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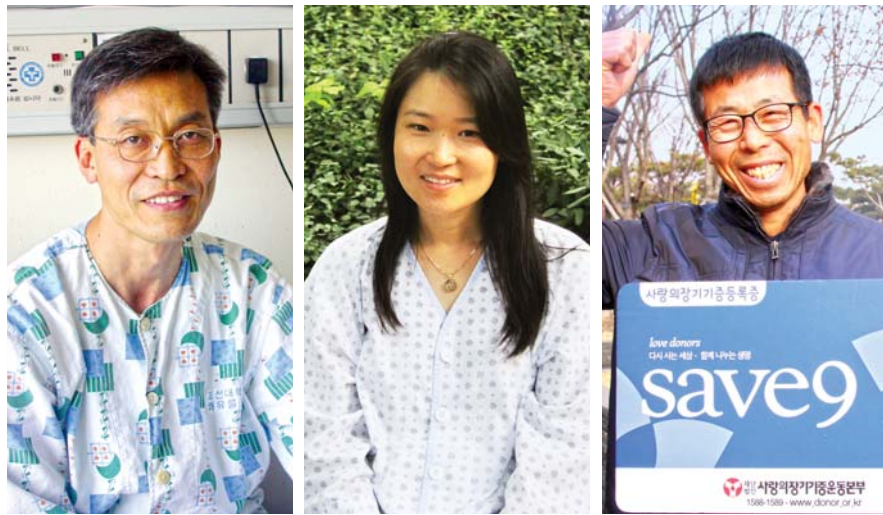
생존시 순수 신장 기증인들
대가 없이 생명 나눔 실천삶의 끝자락에 섰던 환자들
생명 나눔 받고 새 삶 꿈꿔

기약 없는 투병생활을 이어가는 환자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는 이들이 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생존 시 순수 신장 기증인’들이다.

“기쁜 마음으로 신장 기증에 임할 수 있어 축복입니다.” 김주백(60·제주 추자면) 목사는 장기기증 수술을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5년 신장을 기증한 데 이어 2009년에도 간 일부를 기증해 2명에게 생명을 선물했다. 그의 신장은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50대 여성에게, 간 일부는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전해졌다.

김 목사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는 교회 청년의 소식을 듣고 생명나눔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육과 김 목사는 결심이 서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김 목사는 “신장을 이식받은 분의 아들이 ‘어머니가 3년만에 소변을 봤다’고 좋아할 때 가장 뿌듯했다”고 말했다.

조애영(48·서귀포시 대정읍)씨는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한달음에 서울로 달려갔다. 조씨는 고등학교 친구가 만성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혈액 형이 맞지 않아 기증을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찰나, 서울에 신장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50대 여성에게 신장을 기증했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이들이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장 기증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김주백 목사, 조애영씨, 이득만씨.

다. 조씨는 “투병생활 중인 누군가에게 너무 늦지 않게 신장을 기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득만(64·제주시 연동)씨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다. 이씨는 1995년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동료들은 쓰러진 이씨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수술비까지 대신 지불했다. 이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필요로 했던 순간 이웃의 따뜻한 손길로 생명을 되찾게 됐다”며 “그때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뒤 2014년 루프스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신장을 선물했다.

“제가 기증인에게 보답하는 방법은 나누어준 생명을 건강히 지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6년간의 기다림 끝에 신장 이식을 받아 새 삶을 살고 있는 윤창근(서귀포시 남원읍·55)씨의 말이다. 그는 2008년부터

몸이 붓고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병원을 찾은 결과 신장 기능이 10~12%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이식 뿐이었다.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다 2014년 부산에 거주하는 김진정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게 됐다. 윤씨와 김씨는 최근까지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다.

부부가 동시에 생명의 기적을 선물 받은 사례도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장 기능이 나빠 투석을 이어오던 고경아(48·제주시 화북동)씨는 20대 초반 뇌사 장기기증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거부반응이 생겨 재투석을 이어왔다. 이후 2008년 최재열 목사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게 됐다. 고씨 뿐 아니라 남편 원승윤씨도 12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2011년 뇌사 장기기증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았다. 고씨는 “저희 부부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생명 나눔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실종 4시간만에… 스쿠버다이버 전원 구조

서귀포시 범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실종됐던 다이버 3명 전원이 구조됐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4분쯤 사고지점에서 약 6km 떨어진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 A씨(47) 등 3명이 구조됐다.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운행 중이던 레저보트가 이들을 발

견했다.

이들은 중문 성천포구를 통해 입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A(47)씨, B(37·여)씨, C(28)씨 모두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2명은 스쿠버다이빙 수강생이고 나머지 한명은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쯤 낚시어선을 이용, 서귀포 범섬 북쪽 300m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에 나섰다. 이후 1시간이 넘도록 물위로 올라오지 않자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에 나선 3시간쯤 뒤 구조를 완료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내 집 마련 꿈… 주택 대물림은 늘었다

부동산거래 부익부 빈익빈

도내 생애 첫 건물 거래
지난해 3000건대로 감소
다주택자 증여는 증가세

제주지역 무주택자의 부동산 매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주택자의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지난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 동향’과 법원 부동산 등기 데이터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생애 첫 부동산으로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건수는 총 2304건으로, 전체 부동산 집합건물 거래 건수의 14.38%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생애 첫 집합건물 거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434건(전체 건수 대비 24.95%), 2011년 4969건(40.49%), 2012년 3872건(29.49%), 2013년 5249건(34.40%), 2014년 5064건(32.39%), 2015년 5097건(26.44%), 2016년 4901건(22.79%), 2017년 5120건(17.31%), 2018년 5007건(14.88%), 2019년 3683건(13.20%) 등이다.

정부가 2013년까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리 대출, DTI 규제 완화, 양도·취득세 경감 등 신규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부양 정책을 펼치자 제주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의 비율은 40%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대출 확대,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이미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의 매수세는 증가하는 반

면,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의 비율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의 증여는 지속해서 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10년 393건이었으나 2015년 547건, 2016년 740건, 2017년 790건, 2018년 778건, 2019년 652건, 올해 8월 기준 567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주택자는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갈아타기 또는 투자를 위한 추가 매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가 2017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는 법인 거래, 증여 등으로 인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분홍빛 가을 22일 서귀포 남원을 휴애리자연생활공원에서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핀 핑크몰리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선거법 혐의 원 지사, 다시 법정에…

피자 제공·업체 제품 홍보
檢, 기부행위로 판단 기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원 지사가 올해 초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직원과 교육생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지난 해말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영양식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

혔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제주 특산물 흡소깡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하는 도중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고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하는 등 특정 업체를 위한 상품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 2일 도내 한 취업기관을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원 지사가 제공한 피자는 60만원 상당으로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상민기자

남·여 세트
대여가
138,000

세상에 이런일이

양복과 한복을 한곳에서

The MAN

강남한복

양복 판매 159,000원~

양복 대여 39,000원~

한복 대여 99,000원~

제주시 오남로 20
(종합운동장과 보건소사이)

문의 : 064 **752.8899**